

## 두란노 소식

두란노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지난 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시는 안충효선교사님을 모시고 은혜롭게 집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 예배와 셀모임을 모두 마친후에 5시부터 셀장회의가 있었습니다.
3. 10월 8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해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날 성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셀모임 시간에 건너편 룸에서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담임목사와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 SEA Mission(김갈렙선교사)에서 11월 몬트리올 노숙인 사역에 쓰여질 겨울용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겨울용품이나 사용했던 겨울용품(목도리, 장갑, 겨울외투, 그 외 방한용품)을 세척하셔서 10월 마지막주까지 도네이션에 동참해주신다면 좋은 일에 값지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5. 10월 5일 목요일 저녁 6:30에 황우경 / 이명순집사님 아들, 황명익군과 심예진양의 결혼식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많이 동참해주셔서 축복과 축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6. 기도시간은 매일 저녁 8~10시, 새벽 예배는 화~토 오전 6시,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저녁 8시, 금요 기도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새로운 성전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 예배 안내

- 주일 예배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00  
새벽 예배 화~토 오전 6:00

신앙 상담

647.980.5791

89 Finch W, North york ON, M2NH6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_\_\_\_\_

# 두란노 교회

D / U / R / A / N / N / O C H U R C H

SEP 24, 2017



섬김의  
손길

- 담임목사** 이강화 목사  
**전도사** 조선희 전도사  
**찬양팀** 인도 | 구수진 사모, 강지연, 김샬리  
연주 | 김동해, 오준성, 윤유진, 이웅희, 이기준  
기술 | 이기훈, 한정훈, 박지은

**대표기도자** 10월 1일 이웅희 / 8일 윤유진 / 15일 이호성 / 22일 박지은

# 주일 예배 순서

SEPTEMBER 24, 2017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 구수진 사모)
대표 기도	----- 기준남 집사
헌금	-----
성경봉독	----- 누가복음 19:1~10
말씀선포	----- “예수로 채우는 삶”
축도	----- 이강화 담임 목사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헌금은 예배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헌금함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의 샘

###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를 생각해 보는 시간

연세의료원 원목실에서 평생을 일하시며 헌신하시고 계시는 김복남 전도사님이 한때 간증을 하셨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수 많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사고나 병으로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삶을 많이 보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팔이 절단된 환자들이 “내 아들의 머리를 한번만 쓰다듬어 보았으면..., 내 아내를 한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유방암 전이로 팔을 절단한 아주머니는 “다시 손이 생긴다면 절대로 빨래를 세탁기에 하지 않고 손빨래를 할 거예요. 다시금 팔이 주어진다면 집안일이 아무리 많아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 할거예요.” 하더랍니다. “전도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자기 두팔은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렇게 일하고 있는 청소년부가 부럽습니다. 내게 팔을 주어져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안아볼 수 있고 열심히 일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팔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발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에 다리 없는 사람들이 고무

다리를 끼우고 산다고 하길래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고 싹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병원에서 다리 없는 사람들의 의족을 끼우고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단된 부위와 의족이 맞물려서 굳은 살이 생겨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의족을 신고 다니려면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날마다 쓰고 다니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의족을 맞추고 난 뒤에 살이 켜서 그 의족이 맞지 않자 비싼 의족을 다시 할 수 없어서 힘들게 의족을 신었지만 10미터도 채 못가서 통증 때문에 의족을 벗어야 하는 그런 환자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경우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두 다리가 없는 경우는 그 딱함을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그 정도는 감사 해야지요”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바로 척수 장애인이란 분들인데 이들은 팔, 다리 없는 분들이 나일론 환자라 부르며 무척도 부러워합니다. 이들은 소변이 마려운지, 대변이 마려운지 느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의료원에서 수고하시는 박찬일 교수님이 하루에 4-6번씩 방광 훈련 치료를 하는데, 30분 이상 주먹으로 방광을 두들겨 자극해서 소변을 내보내야 하는데, 팔이 시리고 얼얼해서 파스를 부치고 하는데, 이들의 고통은 말로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실 것을 권해도 소변 빼내기 힘들어 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 전도사님은 목마르면 마시고, 화장실에 가고프면 가서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일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밥을 먹고 마실 때만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셔도 꼭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 10월 8일은 2017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며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며 누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하고 묵상하면 참 감사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한해 우리의 열매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뜨거운 감사와 사랑일 것입니다.

